

고군산군도 전체, 해상관광지로 조성

군산시가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인 고군산군도 전체를 천혜의 해상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선정된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시작해 관계부처와 투자협약을 위한 절차가 6월말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올해 처음 공모한 지역발전 투자협약사업이다.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기획한 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의, 조정으로 수평적 협약을 체결하는 다부처 및 다년도 사업이며 안정적인 재정운영 및

군산시, 지난달 8일 선정 '온리원 고군산' 벨트 조성 시작 관계부처와 투자협약 절차 마무리·하반기부터 용역 착수

효율적 사업 시행이 특징이다. 사업이 추진되는 고군산군도 일원은 연결도로 개통으로 4개의 섬이 육지와 연결돼 도서 환경과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어느 곳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서 내 필수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 따라 고군산군도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내렸다.

대표 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도서종합개발사업'과 해양수산부 주관의 '어촌뉴딜300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공간적으로 연결된 도서에

각 부처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서별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시기 및 유사사업의 조정, 사업이후 사후관리, 주민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도서개발은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군산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신규 사업을 적절히 조율해 온리원 관광벨트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신시도권역은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여촌환경 정비 사업을 묶어 휴식과 어촌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해양생태형 관광지로 조성된다. 무너도권역은 어촌뉴딜300사업(수산

특화형)과 연계한, 고군산 투어버스 환승장을 설치해 수산특화거리의 조성에 중점을 뒀다.

장지도는 고군산의 최서단 섬으로 말도리 일원에 조성 중인 고군산 명품 트래킹코스(L=14km)와 연계한 차도선 및 여객선 선착장을 설치한다.

차도선과 선착장이 설치되면 주말을 이용해 섬 분위기와 트래킹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해상교통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시는 앞으로 고군산군도 일원은 다부처 협력사업을 통해, 단순한 시설확충이 아닌, 섬 특성을 반영한 도서지역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과 함께 장기적으로 근대문화거리와 연계한 군산시만의 특화된 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23일 옥구를 수산리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현장에 방문, 현장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철 맞춤형 농촌행정 '눈길'

군산농기센터, 옥구읍 수산리 드론 이용 벼 직파현장 방문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직접 농촌 현장을 방문하는 등 맞춤형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시 농기센터에 따르면 23일 김병래 소장을 비롯한 부서 관계자들은 옥구읍 수산리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현장에 방문해 현장점검과 현장에서 겪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재배는 쌀을 띄운 볍씨를 직접 논에 뿌리는 일반적인 벼 직파와 달리 논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물관리가 된 논에 직접 뿌려 재배하는 방법이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노동력의 양적감소와 질적 저하로 벼 재배 시 노동력이 많이 드는 못자리 설치, 비료 살포, 병해충 방제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종자 철분 코팅방식 도입, 논 레이저 정밀균평, 사비 방파 개선, 효과적 잡초방제 등의 실증기술을 적극 발굴 확산해 농업경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요를 충족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병래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을 위해 생동감 넘치는 현장행정을 펼쳐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찾은 답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아외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 때 이른 더위에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마동공원 등 3곳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범죄 예방과 주민편의를 위해 공원에 설치된 공용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마동과 주현, 인화공원 등 3곳으로 노후화된 공용화장실이 철거되고 남·여분리된 화장실이 설치된다.

시는 사업비는 1억8천만 원을 투입해 6월 초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분리가 되지 않은 화장실이 위치한 나머지 4곳 공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공원은 30년 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곳으로 화장실이 분리돼 있지 않아 범죄우려 등으로 어린이와 여성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익산=장양원 기자

내일 익산서 '대한민국 농악축제' 한마당

보석박물관 칠선녀 광장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 농악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오는 25일 보석박물관 칠선녀 광장에서 이리농악보존회(회장 김익주)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에 개최되는 농악축제는 우리지역의 자긍심인 이리농악(11-3호)을 비롯해 강릉농악(11-4호), 평택농악(11-2호), 진주·삼천포농악(11-1호), 구미농악 등 총 5개 단체가 참여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익산시를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각 지역의 농악을 한 자리에서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농악은 긴 세월동안 조상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오는 25일 보석박물관 칠선녀 광장에서 이리농악보존회(회장 김익주) 주관으로 개최된다.

들의 열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전통문화 예술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뿌리를 찾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고유의 멋진 가락과 풍류를 전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 수돗물평가위원회

대아저수지 등 탐방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단장 최양욱)은 23일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수돗물 원수 수급 현황 등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함께 익산시 취수원인 대아저수지와 상수원수로 주요지점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위원들은 신홍정수장에서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상수원 현황 및 원수 수질관리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아저수지 및 어우보 등 상수원수로 주요 지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수원 수로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의회, 공항주변지 소음피해 정책토론회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와 함께 지난 22일 지방공항 활성화 및 주변지역 주민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군산출신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상훈 위원장의 진행으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군산시의회, 전라북도 광역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공항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가 상충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정책과 대책마련에 대해 심층토론

을 벌였다.

김상훈 위원장은 "항후 공항 문제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 간의 교류 및 연대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은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음대책사업 개선방안과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소방서, 제3산단 현장방문

익산소방서는 23일 익산제3일반산업 단지에 위치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 취급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실태확인 ▲CEO 화재 예방 관심·의지 제고 ▲주요시설물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 ▲자율 소방안전 관리의 필요성 및 관심유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논의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방문을 통하여 최신화된 대상물 사전정보 파악으로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원광대 김경현·정문주 교수, 특수교육원 공모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경현(사진 왼쪽), 정문주(사진 오른쪽) 교수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공모한 '2019년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 개발' 과제와 '장애학생 인권 실태조사 도구 및 지침서 개발' 과제에 각각 선정돼 총사업비로 약 3억2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 개발 용역은 제3차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장애 영아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2차 장애를 예방하며, 개별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서 및 활동자료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김경현, 정문주 교수는 앞으로 유



아특수교사 및 특수교사, 인권교육 전문가 및 학부모들과 함께 교사용 지침서 1책, 운영의 이해 1책, DVD를 포함한 활동자료집 10책, 인권실태조사 도구 1종, 지침서 1종을 개발하고, 개발된 자료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에듀에이블(<http://www.nise.go.kr/main.do?s=edutable>) 사이트에 탑재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